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송영식

송복은장학재단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

-

지은이 송영식

-

발행일 2007년 6월 27일

발행처 송복은장학재단

-

디자인 베가스튜디오 이정혜

편집 베가스튜디오 김현호

출력 경운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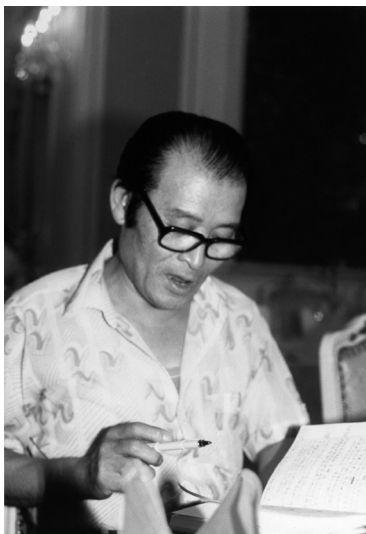
인쇄 마이컴프린팅

제본 경성제책사

-

차례

I	서문	6
II	가난	16
III	가출	30
IV	새 삶을 향한 도전	42
V	자수성가	58
VI	성장과 안정	74
VII	맺는말	90
* 선행 수상내역		104



故송복은 님

유언증서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宋福銀

본인은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67. 및 67-1 토지와 지상건물을 재단법인 송복은 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장학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므로 본인의 위 재산에 대하여 본인의 상속인들은 본인의 위와 같은 의사를 받들어 상속을 요구할 수 없다

2002년 6월 9일

유언자 宋福銀 

二
號
紙

I 서문

나의 선친 송복은(宋福銀) 님은 경기도 포천군(2004년초 시로 승격) 군내면 구읍리에서 1920년 2월 15일(음력) 빈농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셨다. 나는 선친이 출생하신 '구읍리'에서 약 2km 떨어진 '신읍리'라는 곳에서 1940년에 출생하여 1949년 포천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4학년까지 그곳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선친이 출생하신 구읍리는 나에게 매우 친숙한 곳이다.

선천께서 출생하신 집에는 나의 친할아버지 송창신(宋昌信) 씨와 친할머니 孫씨가 6·25전쟁을 전후해서 돌아가신 후에도 종손인 나의 큰아버지 송복선(宋福善) 씨가 나의 사촌들과 한동안 사셨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내가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때 놀러가곤 하던, 그리운 고향의 추억이 담겨 있는 곳이다.

또 지금도 작은아버지 송복열(宋福烈) 씨와 사촌동생들이 신읍리, 송우리 등지에서 살고 있고, 특히 부모님들을 모신 선산이 구읍리에 있어서 별초(금초) 때나 차례 등을 위해 일가친척이 가끔 모일 때가 있으며 나는 일년에 한두 번씩 성묘를 위해 고향을 찾는다.

선천이 출생하신 초가집은 6·25전쟁 이후에도 남아 있었으나 언제인가 헐려버렸고, 그 자리에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마을운동 시절의 시멘트벽과 기와지붕이 있는 양옥이 들어서서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다. 다만 집 근처에 동네 공동우물 겸 빨래터로 사용되던 샘물만이 아직도 솟아오르고 있어, 어릴 적 추억을 되살려주고 있을 뿐이다.

선천이 출생하신 구읍리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는 흔히 볼 수 있는 시골농촌이었다. 지금은 포도와 인삼도 재배하고 젓소도 기르고 작은 중소기업 공장들도 들어섰지만, 우리 선천이 출생하시고 내가 서울로 이사올 때까지는 농사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이 없었던, 풍족하지 못한 한국의 전형적인 가난한 농촌마을에 불과했다.

그러나 포천은 한자의 ‘抱川’이라는 의미 그대로, 전체적인 지세를 살펴보면 동쪽에는 수원산, 그리고 서쪽에는 왕방산이 우뚝 솟아 있고 그 가운데로 요즘은 수량이 많이 줄고 오염이 되긴 했으나 시원하게 커다란 하천이 흐르고 있어, 과연 옛날부터 취락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춘 지역이었다. 고려왕조의 유적지를 포함하여 많은 역사적 자취가 남아있는 고장으로, 풍수지리가 좋아서인지 최근에도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훌륭한 인재를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선친께서도 본인의 성장과정을 직접 나에게 체계적으로 말씀해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기술하는 내용은 외조모님, 어머님 그리고 다른 일가친척들로부터 그때그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이 사실과는 좀 다를 수도 있고, 과대 또는 과소포장된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나, 이렇게 우리 선친을 회고하는 조그마한 글을 쓰려는 목적은 단 한 가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들과 같이 좋은 교육도 받지 못하고, 맨주먹으로 세파를 헤쳐 나가면서 자수성가 하신 우리 선친의 생애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할 우리 재단 장학생 여러분들에게 작으나마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자극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의 선친은 2002년 6월 27일, 82세를 일기로 타계하셨다. 생전에도 선친께서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점은 항상 느끼면서 살았지만, 특히 돌아가신 후에는 선친의 유언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그리고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또한 생전에 선친과 교분이 있던 분들로부터 선친에 관한 덕담을 회고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선친에 관해서 조그마한 책자라도 하나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선친의 유산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장학생들에게만큼은 선친의 생애를 알리는 것이 작으나마 그분의 뜻을 기리고 받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분의 살다 가신 발자취를 정리해 보는 것이다.



조부 송창신 님 묘비 헌정 기념.
송복은 님(왼쪽 끝)과 친척들, 1989년.

Ⅱ 가난

선친께서 자라나신 집안은 빈농은 빈농이되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은 아닌 것으로 기억된다. 내가 중학생 때인 것으로 기억된다. 6·25전쟁이 지난 후에 조부이신 송창신(宋昌信) 씨가 돌아가셨으며 전통적인 장례의식에 따라 상여로 인근 선산 장지까지 동네사람들이 조부의 유해를 모시고 가던 생각이 난다. 그때 우리 선친이 상여를 메고 가는 동네분들에게 소위 ‘노잣돈’을 내놓으면서 상여를 움직이려고 애쓰시던 장면이 기억이 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웃동네 사람들인 상여꾼들이 고인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가 서러워하신다는 이유로 상여를 앞으로 전진시키지 않고 지체시키는 것인데, 이런 일은 고인과의 이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늦춰 슬픔을 달래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상여꾼들이 고의적으로 장례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상주들로부터 노자와 술과 음식을 받아내려는 계산이라고도 볼 수 있다. 우리 전통결혼 풍속에서 함진애비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해 신부집 입장을 지체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하여간 이런 일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절차에서만 볼 수 있는 슬픔과 짓궂음이 한데 어울려서 상주들이 현실감각을 빨리 되찾도록 하는 효과까지 합쳐진 독특한 풍습으로, 요즘 도회지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조부 송창신 씨가 3남 1녀를 먹여 살렸던 논과 밭은 그다지
넉넉지 못해 선대의 생활은 가난했다. 할아버지가 60세밖에
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도 그렇게 넉넉지 못하게 살면서
6·25전쟁을 겪는 등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억된다.
그렇게 가난한 환경 속에서 선친의 형님 되시는 송복선(宋福善)
씨는 장남으로서 여느 농가들과 같이 대를 물려 조부처럼
농사를 계속 지으셨으며, 이 가난하고 힘겨운 농사일은 후일
1960년대 초에 집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이사하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야기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란 우리 선친이 악의악식(惡衣惡食) 하시면서도
알뜰히 모으신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 중의 하나는 논
열 마지기를 선친의 아버지인 송창신(宋昌信) 씨에게 사드린
일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선친은 정말 효자 중에 효자임에
틀림없는 분이시다. 논 열 마지기를 사서 큰집에 드리고 난 후
우리 종가의 살림은 많이 나아진 것으로 기억되며, 어느 해인가
선친과 함께 큰집 앞마당에서 일가친척들과 함께 탈곡기를
돌리고 추수를 마친 다음 징과 팽과리를 치면서 풍년을
축하하고 질편하게 큰잔치를 벌였던 즐거운 추억이 지금도
새롭고 정겹다.

어느 해 겨울에 종가집 식구들과 함께 미꾸리 사리를 한 후에, 노래를 부르고, 한판 놀았던 기억도 생생하다. 선친은 젊어서부터 노래를 좋아하셨고 하모니카는 물론 아코디언을 연주하셨으며, 최신식 축음기를 구입하시는 등 음악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선친은 60대 이후의 일이지만 조상들의 묘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의 조부(우리 부친의 생부)의 무덤에 비석을 세우고 묘역을 단장하는 등, 가난 속에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들을 추모했는데, 논 열 마지기, 그리고 묘지 단장. 이 두 가지 일은 선친이 밥술이나 먹게 된 다음 맨 먼저 자신의 부모에 대해 마음을 바친 효행으로, 내가 부친에 관해 기억하고 있는 가장 마음 흐뭇한 일들 중의 하나이다.

이제 다시 우리 선친이 태어나고 교육을 받았던 시기로 돌아가보면, 우리 조부는 그 당시 수많은 농촌의 다른 가장들처럼, 3남 1녀인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재정적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남 송복선(宋福善) 씨는 동네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좀 하였고 국민학교는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불분명하며, 차남이었던 우리 선친과 동생 송복열(宋福烈) 씨 그리고 여동생 송복진(宋福珍) 씨도 국민학교를 나오는 등 마는 등 학업을 계속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당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으나, 부친으로서는 못 배운 한이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진 시기였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큰아버지에 의하면 나의 증조부 되시는 분은 우리집에 양자로 들어오신 분이시다. 그분이 양자로 오실 때는 집안에 땅도 좀 있고 사정이 괜찮았지만, 양자로 들어온 증조할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벌지 않고 양자로 와서 상속받은 재산은 후손에게 남기지 않고 자기 대에 모두 쓰고 돌아가시겠다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개똥철학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별로 남긴 것이 없다고 한다. 얼마만큼이나 큰 재산이었는지는 미지수이나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증조할아버지가 재산을 좀 물려주었으면, 우리 선친도 남과 같이 고생도 좀 덜하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좀더 큰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한편 그런 증조부의 피를 받아서인지 우리 선친도 그렇게
갖은 고생 끝에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모두
장학재단(獎學財團) 설립에 출연(出捐)하도록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여하튼 냉혹한 현실은 당시 우리 집안이
선친을 국민학교를 마친 뒤 최소한 중학교에라도 보낼 형편도
못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우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농사를
거드는 일을 하면서 자랐다. 조부를 도와서 소 먹일 풀을 베고,
논일과 밭일을 도왔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우리 부친이라고
해서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부친은 3남 1녀 중에서
유독 외모도 출중하시고 또 총명하시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과 호기심이 강했고, 매사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셨다.
무엇보다도 성격도 명랑하시고 가무를 즐기시는 등 다른
형제들과는 유별난 데가 있는 분이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와 같은 성격이 형제들과는 다른 인생을 엮으신 배경이
아니었던가 생각해본다.

선친이 어린 시절, 풀을 먹이려고 논두렁에 소를 데리고 가면,
서울에서 유학하다가 여름방학에 놀러 온 또래의 학생들을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나는 선친에게서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 또 겨울방학에는 서울 유학생들이
개울이나 논이 얼음판에서 번쩍거리는 스케이트라는 것을 타는
것을 보고, 속으로 얼마나 부러운 마음을 가졌었는지 모른다는
얘기도 들었다.

내가 그때의 우리 선친의 마음을 헤아려보면, “서울 유학생들은 부모 잘 만난 덕에 서울 가서 공부하고 어린 나이답게 즐겁게 노는데, 나는 부모가 가난해서 같은 또래이건만 소를 끌고 논두렁에 나와 풀이나 먹이는구나.” “나는 이렇게 커서 결국 농사꾼이 되어 일생을 땅과 씨름하면서 큰 변화 없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등 부러운 마음과 열등감,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도 또 다른 마음 한구석으로는 미래에 대한 강한 도전의지 등 여러 갈래의 생각들이 어린 시절 선친의 작은 가슴을 짝 메웠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몇 년 전 나는 울산에 가서 故정주영 회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전문대학교 개교식에 참석한 적이 있다. 교정에 세워진 돌비문에 故정주영 회장께서 자신이 젊었을 때 학교건물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던 시절, 그곳에서 공부하는 자신의 또래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학생들처럼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을 가졌었던 일을 회고하고 그때의 자신과 같은 불우한 젊은이들을 위해 이 대학교를 설립한다는 취지의 글을 새긴 것을 읽고, 우리 선친에 대한 추억과 함께 눈물이 핑 돌던 생각이 난다.

결국 우리 선친은 같은 또래의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그리고 농사일을 접어치우고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서울로 가출을 하기에 이른다.

선친의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故정주영 회장에 관한 기사 스크랩이 많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는 우리 선친이 故정주영 회장의 인생역정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흠모했기 때문이 아닌가, 나는 보고 있다. 비록 故정주영 회장처럼 부모님이 소 판 돈을 가지고 가출해서 대한민국 역사 이래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후일 소 판 돈 흠친 일을 속죄하기 위해 소떼 1천여 마리를 고향인 북한으로 보내 남북관계의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거사에는 건줄 수는 없겠지만, 자신의 운명에 적극적으로 도전했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두 분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가족 사진, 1953년 경 봉원사에서.
(위에서부터)설립자 송복은 님 내외분과 셋째 아들,
장모님, 큰아들, 둘째 아들, 이모.

Ⅲ 가출

요즈음 신문에는 가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보도된다. 인류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현대그룹의 故정주영 회장 같은 역사적인 사명을 잉태한 가출이 있는가 하면, 생계를 위해서, 혹은 사랑을 위해 또는 집안의 불화로 인한 가출 등등 많은 이유와 배경을 가진 가출들이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한 많은 가출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제껏 나는 살아왔다. 하지만 실제로 선친이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시골집을 뛰쳐나와 서울로 가출하신 일은 참으로 선친 자신의 운명은 물론, 나의 운명도 함께 바꾸어 놓은 큰 사건임에 틀림없다.

만약 우리 선친께서 가출을 하지 않고 가난한 농부의
둘째아들로 시골에서 농부로 계속 살았더라면 내가 서울의
일류 고등학교, 일류 대학교에 진학하여 외교관으로서의
꿈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았
다 하더라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나 자신이 시골생활을
뒤로 하고 서울로 가출해서 새로운 나의 운명을 개척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우리 부친의 가출과 상경은 부친 자신은
물론 우리 직계가족 그리고 친척들에게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끼친, 우리 집안으로서는 혁명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 당시의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선친이 풀 먹이던
소와 농사일에 쓰던 낫과 지게를 내팽개치고 어린 나이에
서울로 용감하게 가출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
선친의 당시 나이가 15세 전후가 아닌가 싶다.

서울로 가출하신 선친은 후일 내가 할머니라고 불렀고
나중에 6·25전쟁이 끝나고도 서울 우리집에서 여러 번
뵈는 기억이 나는 아주 먼 친척아주머님 댁에 의지하면서
자전거 타이어를 때우는 일에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시작하셨다고 한다. 나중에 우리 선친께서 우리 형제들을
낳으시고 밥술깨나 잡수시게 된 후에도, 자전거 타이어 뺑꾸를
때우면서 자수성가의 의지를 불태우던 당시의 이야기를
별로 안 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셔서 그
고생하던 시절의 일들을 다시 기억에 되살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때만 해도 일제 식민통치 하에서 자동차는 목탄차 정도이고,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의 하나였던 시절이라 자전거 타이어 빵꾸를 때우는 일은 아마 그래도 시골에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벌이가 월등 나왔던 모양이다.

우리 선친이 먼 친척아주머니 집에 의탁해서 자전거 타이어 빵꾸를 때우는 일을 하신 곳은 지금의 돈암동 근처라고 들었지만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친이 그때 악착같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을 좀 모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선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착실하게, 하찮은 일이지만 당신이 하시는 일에 성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머님과 결혼 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외조부와 외조모는 내가 탄생한 포천군 신읍리 장터 근처에서 비교적 규모 있는 주막집을 하면서 사시던 분들이다.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술 팔고 안주 팔고, 그래서 농사짓는 것보다는 여유 있는 생활을 하신 분들이었다. 슬하에는 딸만 넷을 두셨고, 우리 어머님이 맏딸이셨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데릴사위로 맞이하기로 하셨던 것이다.

데릴사위라는 것은 잘 아는 얘기지만, 남자 쪽에서 딸만 있는 집으로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를 하는 것인데, 남자 쪽이 재산은 없어도 장래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일이 대부분이며, 남자 쪽에서는 자존심을 접고 처가의 도움을 받으며 같이 살면서 아들 노릇을 하는 남성 중심 전통사회의 풍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선친이 데릴사위로 선택된 배경은 우선 사람이 팬찮았고, 서울로 가출까지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정도의 결단과 의지가 있다는 점을 우리 외가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여하간 우리 선친의 서울 가출은 포천 신읍의 우리 외가로의 데릴사위 생활로 연결되었고, 우리 어머니 쪽에서는 선친이 서울로 가출해 배워 온 자전거 수리와 수선일을 위해 큼직한 가게를 차려주게 되며, 이때부터 우리 선친으로서는 경제적 안정의 기초가 마련되기 시작된 것 같다.

어렵듯하게나마 내 기억으로는 선친이 자전거포 일을 하시면서 가게를 확장하여 산소용접일도 하고 손쉬운 자동차 수리일을 통해 돈을 모으기 시작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친은 원래 꼼꼼하셨고, 술, 담배는 물론 이렇다 할 여가도 없이 오직 일만 하시면서 타고난 근검절약 정신으로 돈을 꾸준히 조금씩 저축해 나가셨다.

우리 선친은 20세 되던 해에 당시 17세이시던 우리 어머님과 결혼하셨다. 나는 1940년에 장남으로 출생했는데, 앞서 말한 대로 나의 외가는 딸만 넷이던 집안으로 오랜만에 남자아이인 내가 태어나 무척 큰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라난 것이 기억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18세에 내가 태어났으니, 생물학적으로는 어머님이지만 실제로는 외할머님이 나를 친어머니처럼 길러주셨다. 때문에 93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나의 외할머니에 대한 사랑과 추억으로 나의 가슴이 저merz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반해, 우리 어머님에 대한 정은 외할머님에 대한 사랑에 비하면 그 강도가 아래라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외할머님은 서울에서 인력거를
끄시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혼자서 계속 주막을
운영하셨는데, 나한테 항상 맛있는 것을 주시고 특히 고기를
많이 먹여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른바 ‘멍멍이’ 고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어렸을 때 외할머니의 정성어린
보신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큰 병치레를 하면서도 오늘날까지
내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우리 외조모로부터 받은 보살핌의 은공을
생각하면서 고인에 대한 애뜻한 추억을 더듬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선친의 가출은 우리 어머님과 결혼으로 일단
농사꾼의 신세를 면하는 변신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우리
어머님을 만나신 후 아들 일곱 명의 출생(두 명은 사망)과 함께
가세의 꾸준한 성장과 발전으로 연결되게 된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지금도 많은 가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중에는 성공으로 열매를 맺는 가출도 있고 아쉽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가출도 있게 마련이다. 나는 우리 선친의
가출이 故정주영 회장과 같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성공을
가져오지는 못했어도 작지만 나름대로 성공하신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려는
노력을 통해 실제로 변화를 이룩한 우리 선친의 용기와
결의에 대해 최대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가끔 나는 내가 과연
우리 선친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선친처럼 새로운
인생항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었을까 자문 해본다.



1953년 경, 설립자 송복은 님이 운영한 택시.
(오른쪽부터)송복은 님, 송복은 님의 친구, 큰아들,
택시 기사, 둘째 아들.

Ⅳ 새 삶을 향한 도전

그러면 이제 부친께서 포천의 시골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서울로 이사 오신 후의 생활을 더듬어 보기로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부친은 총각 시절, 서울로 일단 가출을 해서 자전거포 일을 하시다가 다시 포천으로 돌아와 20세에 우리 어머님과 결혼을 하셨고, 그 이후 내가 10살, 즉 우리 부친이 30세, 우리 어머님이 27세가 되실 때까지 포천에서 처가살이를 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변해버린 신읍리 삼거리 장터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던 우리 외할머니 집에 부친이 자전거포 가게를 열고 일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 자전거 고치시던 모습, 산소용접을 하시던 모습 등 열심히 일하시던 모습이 세발자전거를 타던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남아 있고, 또 그때 해방과 함께 포천에 주둔했던 미군들과 사귀시던 일도 생각난다.

부친께서는 라디오를 통해서 배우셨든지, 아니면 책으로 독학을 하셨든지 영어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매우 초보적인 브로큰 잉글리시였겠지만, 그때 부친이 해방과 더불어 밀어닥치는 세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영어를 배우시고 외국인들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은 우리 부친의 적극성과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호기심을 참으로 잘 나타내 주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1945년, 즉 내가 5살 때쯤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아마 산소 용접이나 작은 차량 수리 관계로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 계기가 되어 잘생긴 백인 미군들이 우리집에 가끔 놀러 와서 어린 내가 방에서 대청마루로 건너가기 위해 쪽마루를 건너가는 것을 못 가게 막으면서 짓궂게 나를 울렸던 기억도 난다. '엠폰(Empon)'이라는 이름을 가진 필리핀계 병사와는 아주 친해져서 자주 포천 일고등학교 자리(현 장학금수여대상학교)에 주둔해 있던 그 병사의 부대를 부친과 같이 방문해서 초콜릿 등 양과자와 그 당시에는 처음 보는 신기한 물건들, 예를 들어 손칼이나 쉼퍼 만년필 같은 것들을 얻어 온 기억이 난다.

그때 미군병사들은 우리집에 같이 살던 20살이 갓 넘거나 채 안 된 우리 세 이모들을 보러 놀러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미국인을 만난 기회였다.

그때 부친께서 미군들로부터 샀는지 아니면 선물로 받았는지는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Withnauer'라는 스위스제 금시계와 만년필(Sheaffer, 유명한 만년필 브랜드로, 흔히 '돼지발톱'이라 불리는 특유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음)은 내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 가지고 사용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보니 없어져 버렸다.

특히 추억에 남는 물건은 처음에는 선친이 아끼시면서 내게는 주지 않으셨던 금시계이다. 나중에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 차고 다녔으나 데이트 하면서 중국집에 너무 여러 번 맡기는 등 막 굴리는 바람에 나중에는 차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낡아버리게 되었다. 아마 시계가 고장나 잘 보관해 두지 않게 되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눈에 선하다. 정말 젊디젊은 대학생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귀중한 시계였는데!

부친께서는 결혼 후 10년 정도 포천에서 사시다 6·25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에 서울로 이사를 하셨다. 서울로 이사를 결정하신 자세한 배경은 지금 나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100% 분명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부친께서 당시 시골 포천에서는 장래가 없으니 서울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가끔 언쟁하실 때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서울로 이사를 올 때, 우리 외할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팔아서 우리 부친이 서울집 전세를 얻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우리 부친이 서울로 와서 성공한 배경에는 우리 어머님의 천정 덕, 다시 말해서 처갓집 덕이 크다는 것을 어머님이 강조하셨던 것이다.

하여간, 우리 선친의 결정에 따라 서울로 이사를 하고, 지금의 을지로 3가와 청계천 3가 사이에 위치한 중구 입정동에 조그만 집을 전세로 얻었고, 아버지는 서울에서 운수사업을 하시던 외할머니쪽 친척한테 도움을 받아 트럭 조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또다시 피나는 자수성가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때 서울 일신국민학교로 전학을 했다. 국민학교 4학년 때 전학을 했는데 얼마 공부를 한 기억은 없고, 곧바로 6·25가 터져 죽도록 배고프고, 헐벗었던 생각만 난다.

6·25는 여느 집처럼 우리집에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우리집은 피난갈 기회를 놓치고 공산군
치하에서 3개월을 지냈는데, 우리 부친은 당시 이른바 의용군
소집과정에서 용케 대열에서 이탈한 뒤 도망쳐서, 고향 포천에
있는 왕방산이라는 산에 토굴을 파고 숨어 있다가 나중에
발각의 위험이 커지자 그 당시 미아리에 살던 첫째 이모네집
돼지우리 밑에 토굴을 파고 숨어서 9·28수복을 맞았다.

다음해인 1951년 겨울 1·4후퇴 때는 우리 가족이 대전까지
피난을 해서 외가쪽 친척한테 의지해서 살았고 부친은
운수사업을 하는 외가 친척을 따라 광주쪽으로 가셨다가,
나중에 대전에서 우리 가족과 합류했다. 그때 우리 어머니는
미군 군복 등, 소위 양키 물건 장사를 하시면서 가족들 입에
폴칠을 하느라고 많은 고생을 하셨다.

휴전이 된 후 우리 부친은 고생 끝에, 갖은 재산을 모두 투자해 택시를 하나 사서 영업을 하였고, 택시를 몰아 모으신 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살게 된 장사동으로 이사를 하셨다. 처음에는 조그만 집을 샀으나 나중에는 큰 집으로 옮겼고, 또 좀더 발전해서 택시업을 그만 두시고 종로 3가에서 부속가게를 시작하셨다.

부친이 택시업을 하실 때 나는 중학생이었다. 그때는 택시가 고장이 잦고 요금 미터기가 없어 운전기사를 돕고, 또한 택시요금을 받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조수가 있었다. 나는 주말이면 어찌다 조수노릇을 하면서 그 당시 학생 신분으로 출입이 금지된 식당에 들어가 점심을 얻어먹던 즐거웠던 일이 생각난다. 참고로 그때 택시로 사용되던 차종은 미제 시보레 1938년식이었는데, 꺾데기만 그렇고 실제 내용물은 한국전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 GMC 트럭의 엔진과 지프의 변속기 그리고 일제 차량 등 오만 가지 잡탕부속을 개조해서 맞춘 자동차로 수리 때문에 운행을 못하는 시간이 많았다. 우리 선친이 서비스 공장 직원들과 그 차를 어떻게나 정성들여 고쳤던지, 다른 차들보다 늘 성능이 우수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호기심이 많던 나는 자동차 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엔진 등 자동차 구조를 상당히 익혀 지금도 자동차 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법 아는 편에 속한다.

이제까지 우리 선친께서 6·25가 나기 전 해에 포천의 처갓집을 팔아 서울로 이사 와서 6·25가 끝난 1953년 이후 몇 년에 걸친 이야기를 주마간산식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부친께서 서울로 이사를 오신 것이 우리 집안으로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의미를 갖는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이다.

먼저 우리 부친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로의 이사는 자신의 신분 향상을 위한, 모험을 건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다. 서울로 이사를 함으로써 조그만 시골에서 조용히 일생을 마쳐야 했던 운명을 과감히 혁파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냥 그대로 포천에 사셨으면, 기껏 잘 돼 보아야 조그만 시골부자가 되었을 뿐, 서울에서의 생활 같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는 못했을 것이 너무도 분명한 일이다

서울로의 이사는 많은 위험부담이 뒤따르는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잘못되면 모든 희망과 설계가 좌절될 수도 있었을 텐데, 30살의 아버지와 27살의 어머니가 서울로의 이사를 결정했다는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시쳇말로 매우 큰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위험부담을 무릅쓰는 일)’을 한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부친이 얼마나 미래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전을 통해 자신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성실함과 근면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떠올리며 나는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할 뿐이다.

우리집의 서울 이사는 나에게도 인생행로를 180도 바꾸어 놓은 결과를 가져왔다. 그냥 포천에 살았다면, 나는 포천국민학교를 나와서 그 곳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 유학을 꿈꿀 수도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서울 유학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부친의 서울 이사로 세칭 일류 중고등학교와 일류 대학을 거쳐, 외교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는가? 참으로 부친의 6·25전쟁을 1년 앞둔 서울 이사 결정은 우리 집안 식구 모두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부친이 소년시절에 농촌에서의 삶을 거부하고 미지의 세계인 서울로 나온 1차 가출에 이어, 결혼과 처가살이를 통한 비교적 안락한 시골생활을 박차고 보다 넓은 세계, 보다 장래가 있고 발전할 기회가 있는 서울로 2차 탈출을 통한 도전을 택했다는 사실은, 그가 국민학교도 못 마친 무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도전정신 그리고 희망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심 등 우리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덕목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이다.



재단 설립자 송복은 님 내외분.
1980년대 초, 연말연시 기념.

V 자수성가

6·25전쟁이 나기 1년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서울로의
이사와 그후 서울에서의 정착을 위한 안간힘, 그리고
6·25전쟁의 발발과 그에 따른 단절과 혼란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그 시대를 살았던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누구나
함께 겪을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시련이었다. 그때 3천만이 못
되었던 우리나라 인구 중 3백만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지극히
비극적인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씨 집안은 친척 중
전사를 하거나 북한군에 끌려가거나, 또는 사상적 충돌에 따른
피해가 없이 다행히도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다.

물론 이와 같이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집안이 대소사를 통해 남에게 큰 인심을 잃을 만한 지주나 친일파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가 아닌, 영세 농민 혹은 소시민의 집안에 불과했다는 점에 기인했을 것이다. 우리 부친의 경우 역시 서울로 이사 와서 친척이 운영하는 운수업 분야에서 자립을 시도하던 시기로, 공산주의자들의 적대적 타도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도 미미한 존재에 불과했었다.

하지만 부친은 연령적으로 볼 때 30세를 갓 넘은 나이로, 적군 치하에서 북한군에 끌려가기에는 아주 적당한 나이였다. 그렇지만 기민한 행동으로 고향으로 피신하여 위기를 모면해 화를 면하고, 우리들과 함께 좋은 세상을 보시고 사시다가 천수를 누리셨다. 물론 우리 집안에서 큰아버지 송창선 씨가 동네 빨갱이들한테 매질을 당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국군과 경찰에 근무했던 집안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 별탈없이 6·25전쟁을 넘긴 것은 우리 집안의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집도 경제적으로는 고생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6·25전쟁 발발과 함께 서울이 함락되어 3개월 간 공산당 치하에서 시달릴 때 미처 피난 못하고 고향의 산 속, 미아리 이모네집의 돼지우리에 은신했던 부친께서는 1·4후퇴 시에는 일찌감치 친척이 운영하던 트럭 화물차와 함께 전라도 광주로 피신을 했다. 나머지 우리 가족들은 아버지 없이 조치원을 거쳐 대전까지 피난 가서 그곳에서 외가쪽 먼 친척한테 의지해서 문자 그대로 연명을 했다.

6·25전쟁 당시, 아버지가 없는 과정에서 우리 어머님과 외할머님은 호구지책을 위해 집의 옷가지를 가지고 고향인 포천에 가서 식량과 바꾸어 오셨고, 또 큰집에 가서 잠시 동안 얻어먹고도 살았다. 그때 그 ‘눈칫밥’ 먹는 생활이란 정말 미안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었으며, 그때 일로 우리 어머님이 전쟁 후에도 가끔 터트리시던 시댁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1·4후퇴 때는 우리 어머님께서 대전의 양키 시장에 나가서 미군 군복을 암시장에서 파셨는데, 그 젊은 나이에 말 못할 고생을 하신 일을 생각하면 참말로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27세가량의 꽃다운 나이에 주로 ‘사지 쓰봉’ 등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양키 물건을 미군 MP(헌병대)와 우리 군경의 단속을 피해가며 암시장에 팔던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배고픈 것만을 생각하느라 미처 몰랐던 생을 위한 투쟁의 처절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당시 10세였던 나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땀감을 준비해야 했고, 한때는 콩을 볶아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하다가 못된 군인놈한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정말 사는 것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매일매일의 싸움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어머니의 고생을 그때는 전혀 모르고 그저 매일 배고프고 고생한다는 생각으로 보냈는데, 이제 생각해 보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의 남자 못지않은 배짱과 억척과 끈질김이 우리 집안을 생존하게 한 커다란 버팀목이었던 것이다.

나중에 우리 부친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이런 어머니의 통 큰 배짱과 양보를 모르는 강인한 성격이 말년에 두 분의 관계를 원만치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으나, 물려서지 않는 불퇴전의 투지와 자신의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성격 등, 매우 강인한 남자화도 같은 대찬 성품이 크게 보아 우리 집안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라.

우리 집안과는 다행히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6·25때 그 얼마나 많은 꽃다운 나이의 여자들이 미군들에게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가? 나중에 나는 외교관이 되어 월남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싸움터에서 계속 죽어가야 하고 여자들은 그 뒤에서 무수히 유린당해야 한다는 현실을 철들어서 다시 한번 반추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혹독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우리 어머니의 억척같은 생활력으로 우리 집안의 여자들은 그러한 수모를 겪지 않고 입에 풀칠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가슴이 저며 오는 그리움과 회한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얘기가 가지를 많이 쳤지만, 이와 같이 우리 부친의 자수성가 과정은 서울로의 이사와 함께 6·25라는 커다란 시련을 겪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내가 평소에 느끼던 것을 정리해 보았다.

1·4후퇴에 따른 대전에서의 피난생활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온 후, 나는 서울 종로국민학교에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우리 부친은, 지금은 김씨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을지로 3-4가 근처 입정동의 커다란 2층 적산가옥에서 사시던, 손수가 어찌되는지 전혀 기억에 없고 다만 우리 외할머니 쪽 친척으로만 기억되는 아저씨가 운영하는 옛날 수도극장 뒤의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경제적 독립의 꿈을 키워 나가셨다, 지금 기억으로 김씨 아저씨는 체격이 아주 뚱뚱하고 안경을 쓰셨는데, 슬하에는 내가 누나라고 부르던 아주 예쁜 딸 하나와 아들이 둘 있었다. 큰아들은 내가 형이라고 불렀고, 이름에 한일자 ‘一’가 있었는데 야무지고 똑똑했다. 둘째는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보다 아래로 조금은 사팔눈에 튼튼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지금 생각에 이북 청진에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씨 아저씨는 매우 덩치가 큰 부인과 몸매가 작고 미인형인 첩을 두고 사셨다.

그렇게 우리 부친은 서울로 이사 오면서부터 김씨 아저씨네 집에서 일을 하며 서울생활을 시작했으며 6·25전쟁을 거쳐 그후에도 김씨 아저씨와 함께 일을 하셨다. 여기서 터득한 운수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드디어 내가 경기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부친은 1938년식 시보레 승용차 택시를 부리게 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자기 사업체의 주인이 되었고, 이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자수성가의 꿈을 착실히 이루어나가기 시작하셨다.

그때 나는 어린 마음에 우리 부친이 김씨 아저씨 덕택에
벌어먹는다는 생각과 함께 그 집에 가면 2층 적산가옥
양옥집에 누나, 형 그리고 둘째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윤택하게 사는 것을 보고 늘 열등감을 느끼던 것이 생각난다.
이들 형제들과는 대전 피난생활도 잠시 같이 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참으로 궁금하기 짝이 없다.

물론 그 당시 우리 부친과 모친이 김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대우라든지 일하는 과정에서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기억이 난다. 그래도 여하간 김씨 아저씨와의
인연은 우리 집안이 서울에서 발을 붙이고 성장하기 시작한
기초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부친은 김씨 아저씨와 함께 일하면서
번 돈과 그동안 저축한 돈 등, 당신의 재산 모두를 투자해서
택시를 사셨는데, 그 택시는 번호가 198번이었다. 나와 부친
그리고 첫째 동생, 운전수와 함께 중앙청에서 찍은 사진을
아직도 나는 보관하고 있다.

택시업은 그러저럭 잘 되었다고 기억된다. 부친은 자동차
사고에 대해 항상 신경을 많이 쓰셨다. 특히 어느 해 겨울인가
한번은 눈이 온 다음날, 빙판길이었는데 급정거를 하다 앞차를
받은 일이 있었다. 그때부터 이제 택시업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신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도 택시업을 하면서부터 우리집은 밥술이나 먹게 되었고,
내가 당시 일류 학교인 경기중학교에 진학하는 등 조용히
착실하게 발전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부친의 근면, 성실과
근검절약이 커다란 역할을 했던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부친이 택시업을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은 아주 전무하다시피 했으므로 자동차 부품은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GMC 트럭, 지프 등의 부속을 개조해서 사용했고, 엔진은 요즘에는 폐차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보링'이라고 하여 재생하여 사용했다. 부친이 서비스 공장(종로 3가와 종로 5가 등지에 산재)에서 보링을 하고 자동차를 수선하실 때, 그 기계의 정밀성 등에 현혹되어 몇 시간이고 수리과정을 지켜보았던 추억이 지금은 즐거운 일로 남아 있다. 그리고 그때 귀동냥해 들은 자동차 부속품 이름과 각 부분의 기능은 훗날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었을 때, 남들보다 자동차에 대한 이해와 애착을 갖게 하는 데 일조를 했다고 본다.

자전거의 타이어 펑크를 때우던 소년이 이제는 어엿한 택시 소유주로 발전하면서 서울 한복판에 집을 장만하게 된 것은 눈물겨운 역정을 거친 노력과 근면, 인내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집안은 커나갔고, 나는 공부를 했고 우리 가족들 모두는 더 잘살아보겠다는 일념 하에 열심히 일하고 또 일했다.



고향 포천 마을에 사물놀이
농악기를 기증하시는 모습, 1990년대.

Ⅵ 성장과 안정

모든 사업에는 나름대로 위험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 택시업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부친께서 무엇보다도 많은 심리적 부담을 느끼셨던 일은 교통사고 문제였다.

1950년대 초반 해도 우리나라에 보험업이 발달할 리가 없었고, 택시업의 경우에도 충돌사고가 날 경우에는 손해가 컸다. 더욱이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그 뒤처리 하는 일이 여간 골치가 아프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한번은 우리 부친이 운영하던 택시가 겨울철에 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앞차를 들이받아 상당한 파손을 입은 일과 또 한번은 길거리에 나온 개를 친 일이 있었다. 부친께서는 나중에라도 인명피해가 나는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를 우려하셨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자신의 심정을 “운수사업은 사자밥을 싸가지고 다니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하루 빨리 택시업을 그만두셔야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당시는 보험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매우 간단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고도 그 뒤처리가 무척 복잡했고, 혹시나 인명사고라도 나면 조금 과장해서 ‘망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 부친의 우려는 가히 이해가 갈 만한 것이었다. 특히 앞서 언급했지만, 그 당시의 자동차 성능이 자동차 생산공장이 없어 전적으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부속을 가내공업 수준의 시설로 개조해 사용할 정도로 열악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시절의 도로 사정, 교통법규체계 등 교통사고의 가능성은 오늘날에 비해 훨씬 높았던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우리 부친은 보다 안정된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되면서 택시업을 그만두시고 자동차 부속품 상회를 시작하시게 된다. 다른 장사나 업종도 많은데 굳이 자동차 부속품 판매업을 택하신 배경에는 서울로 이사한 후 친척 김씨 밑에서 익힌 자동차 기술과 지식은 물론, 한국전쟁을 통해 서양의 문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는 시대적 상황에서 자동차가 앞으로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때 우리 부친께서, 앞으로 자동차 관련 업종분야는 계속 발전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시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부친의 판단은 오늘날 마이 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현대자동차의 성공을 웅변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부친은 종로 3가와 청계천 3가 사이에 위치한 점포에 세를 얻어 자동차 부속품 상회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이런 부속품상들이 취급한 자동차 부속품들은 대부분이 미군 부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엄격히 말해서 장물에 해당하는 물건들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전혀 생산되지 않았고, 따라서 자동차 부속품도 생산이 전무했다. 우리나라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은 일본인들이 타다가 놓고 간 차량들과 한국전쟁 때 군사작전 수송용으로 도입된 미군의 10발이 GMC 트럭, 3/4톤 중형트럭, 그리고 1/4톤 지프차와 그리고 일본에서 역시 군수품으로 생산돼서 공급된 이스즈, 도요타, 그리고 닛산 트럭, 그리고 북한 공산군이 남침시 가져왔다가 놓고 달아난 소련제 '지스' 트럭 등이 전부였다.

따라서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차량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군에서 유출되는 부속품이 필요했으며, 그때 시장에 유통되던 부속은 대부분 미군 부대에서 몰래 빼돌려 판 물건들이었다. 물론 그중에서는 정부에서 정식으로 불하한 차량과 함께 적법하게 취득된 부속품들도 있었겠지만, 지금 기억으로는 원시적이지만 우리 손으로 공작기계를 가지고 부속을 깎은 것과, 일부 적법하게 수입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부속품들은 미군과 우리 군에서 불법적으로 흘러나온 것이었다.

내 생애를 통해 미국인들과의 첫 만남은 해방 직후 우리 부친이 사건, 포천에 주둔했던 미군들이었다. 그때는 그들이 어린 나에게 짓궂은 장난을 해서 울었던 일과, 초콜릿 등 과자나 신기한 물건들을 많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다. 미국인들과의 두 번째 만남은 우리 부친이 부속품 상회를 할 때 미군 헌병들이 우리 군 헌병들과 함께 우리집에 난입하여 미군 부대에서 불법으로 유출된 자동차 부속품을 뒤진 매우 불쾌한 사건을 통해서였다. 그 당시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부속품 중에서 비싸고 귀한 물품은 집으로 가져와서 벽 뒤나 마루 밑에 숨겨 두었다가, 작자가 나타나면 이것을 내다팔곤 했는데, 미군 수사당국이 물품 유출이 심한 때에는 정보를 입수해서 집까지 뒤지는 일이 종종 있었다. 물론 법원의 영장도 없이 폭력적으로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군화도 벗지 않고 부속품을 숨겼을 만한 데를 마구 뒤지면서 집 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언젠가 한번은 집에 있다가, 그 일을 당했는데, 우리 부친과 부친을 도와서 가게일을 보던 막내이모 그리고 우리 어머니와 모든 식구가 혼이 난 적이 있다.

그때는 무슨 적절한 법 절차를 통해 가택수색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고, 또 근본적으로 불법 유출된 자동차 부속품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꿈쩍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을 생각 하면, 지금도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 되곤 한다.

이렇게 나의 미국인과의 두 번째 접촉은 매우 위협적이고 겁나는, 그리고 아주 불쾌한 경험으로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러면서도 우리 부친이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돈을 벌어 우리를 이만큼 키웠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아버님 영전에 머리 숙이고 옷깃을 여미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일은 우리 부친만이 당하신 일은 아니었고, 그때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던 온 나라가 모두 겪었던 일이었다고 본다.

사족이지만 지금 언급한 미군 헌병의 우리집 수색사건과 관련하여, 웃지 못할 사건이 또 하나 있다. 자동차 부속품을 집에 숨겨 놓을 때, 마루 밑이나 천장, 지하실 등 여러 장소를 활용했는데, 은닉 장소의 하나로 옆집과의 벽 사이 공간을 이용한 것이 한번은 화근이 되었다. 우리집 마루벽과 그 뒷집의 벽 사이에 상당한 공간이 있는 점에 착안해서 벽을 뚫고, 그 속에 많은 양의 부속품을 숨겨 넣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부속품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물론 정확히 물품목록을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팔려고 찾으려면 비싼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생겼다. 셋덩어리를 쥐가 쓸어서 없앨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동안 꺼림칙하게 지내다 자세히 관찰해보니, 우리 옆집에 사는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은 남자아이가 벽 사이에 부속품을 숨겨둔 것을 알고, 그쪽 집에서도 벽에 구멍을 뚫고 가끔 비싼 물건을 빼다가 팔아서 용돈으로 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옆집 아저씨 부부와 한바탕 언쟁이 벌어졌다. 나중에 물건은 그 아저씨 부부가 양자로 데려온 남자아이가 단독으로 훔친 것으로 판명되면서, 야단치는 일로 일단락 되었지만, 그 사건의 초기에는 이웃집과 큰 싸움이 되어 상황이 참으로 심각하였던 일로 기억된다.

우리 부친은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부속품 상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상당히 저축을 할 수 있었다. 부친은 부속품 상회를 해서 저축한 돈으로 우리가 살던 장사동 199번지 2호 집을 팔고, 그때 기분으로는 대궐처럼 느껴지던 장사동 67번지로 이사를 하게 된다. 부속품 장사를 하실 때 지금도 2평 정도 되는 가게인데 문도 없어 겨울에는 아주 두꺼운 털잠바를 입고 조그만 연탄불을 쪼면서 물건을 팔곤 했던 부친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엄동설한에 문도 없는 가게에 앉아 하루 종일 장사를 하시던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고생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이 갈 것이다.

또 못 잇을 일은 그렇게 고생을 하셔도 내가 책을 사겠다고 말을 하면 언제나 아무 말씀 안하시고, 선선히 책값을 주시던 우리 부친의 모습이다. 지금 생각하면 아련히 가슴이 아파온다. 몇 년이나 부속품 가게를 하셨는지, 부친은 장사동 67번지의 집을 사서 이사하신 후에도 계속 열심히 일하셔서 67번지 집보다 더 큰 옆집(현 장학재단 사무실)을 사셨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셔서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작은 집을 사서 서울 종로 3가 한복판에 170평이나 되는 땅을 장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주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친께서는 지금의 재단 사무소에 위치한 건물에서 여관업도 하셨는데 자식들을 키우면서 여관업을 계속 해야 할 것인지의 문제로 많이 주저하시던 일도 생각이 난다. 그러나 말이 쉽지 자동차 부속품 상회를 하면서 5형제를 기르고, 종로 3가 한복판에 부동산을 170여 평을 마련하셨다는 것은, 우리 부친이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결의가 굳고 또 검소하고 절약하는 분이었나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조의조식(粗衣粗食) 하시면서 사시사철 오직 일에만 매달리시던 부친께서는 부동산이 약 170평이 된 다음에는 이제 더는 부속품 가게를 계속 하실 기력이 안 되시는 것을 실감하셨던 것 같다. 그래서 부속품 상회를 접고, 그동안 매입하신 부동산을 가게로 개조하여 임대업으로 업종을 바꾸게 되며, 이러한 임대업은 부친이 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임대업을 시작한 후 부친은 예전보다는 약간 편한 생활을 하시면서,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어하셨던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평소 즐겨하시던 노래와 춤을 즐기셨지만 근검절약의 생활태도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계속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혼한 자가용 한 대 가져본 일이 없고, 지금 재단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살고 있던 자택에는 요즘 세상에서는 기본인 난방 보일러와 양변기 설치도 마다하셨다. 아침산보 길에 동네상가 주변에 흩어진 상품을 포장했던 나무나 종이상자를 주워 난방을 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외화를 절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시곤 하셨다.



1998년 6월 10일,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포상으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

VII 맺는말

지금까지 나의 본래 의도와는 달리 좀 장황하면서, 이야기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었고 시간의 진행이 앞뒤가 바뀌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부친의 일생에 대해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나름대로 진솔하게 정리해 보려 애썼다.

우리 부친의 삶을 글로 남기려는 이러한 나의 의도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겪어가며, 근검절약으로 애써 모은 재산을 쾌척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한 부친의 깊은 생각과 생활철학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송복은장학생들이 어려운 세상살이를 헤쳐나가고, 자신의 인생살이의 좌표를 설정함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끝으로 우리 부친이 생전에 삶의 지표로 여기며 살았던 덕목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 부친 송복은 님의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많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세상으로 뛰어들고 또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뒤에는 '서울의 꿈'을 이룩하기 위해 삶의 거처를 옮기는 이사를 단행, 새로운 생활에 도전해서 자동차 서비스업, 택시업, 자동차 부속품상, 여관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업을 하면서 자신의 발전을 꾀했던 부단한 도전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인류의 문명과 역사는 크고 작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 부친도 당신 나름대로의 도전에 성공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임에 틀림없다.

송복은 님이 가졌던 덕목 중에 또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덕목은, '근면·성실'이다, 그는 수신교과서에 나올 만큼 부지런하고, 또한 성실하게 일했다. 술은 경제적 형편이 나아진 후부터 반주 정도는 하셨지만,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았으며, 일생을 통해 나태와 방종과는 아주 거리가 먼 생활을 하셨다. 나의 선친은 그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신 분이다. 부친은 82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항상 무슨 일인가를 하시면서 노동을 낙으로 아시고 사신 분이다. 할 일이 없으면 집 안 청소나 지붕의 기와수선 등, 늘 일을 찾아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사셨기 때문에 가끔 악수를 할 때면 악력이 어찌나 세던지 내 손이 아플 정도로 건강하셨다.

‘근면·성실’과 늘 함께 따라 다니는 송복은 님의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덕목은 ‘근검절약의 정신’이었다. 우리 부친은 80년 평생 그 혼한 자동차 한 대 개인적으로 소유하신 일이 없는 분이다. 이동시에는 언제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셨고, 택시는 아주 예외적으로 이용하실 정도였다. 식사도 외식은 절대 안 하시고 언제나 간단하고 검소하게 하셨고, 옷도 점퍼 차림을 좋아하셨으며, 넥타이를 매시는 일은 많지 않았다. 집의 난방도 기름 보일러를 마다하시고 새벽산보길에 상가 길거리에서 주워 온 나무와 종이상자를 주로 연료로 사용하시는 등, 정말로 검소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다. 지금도 가슴 저며 오는 일 중의 하나는 가끔 찾아뵈면 용돈을, 그것도 장성한 큰아들에게 주는 용돈인데도, 많지도 않은 10만원을 천 원짜리로 바꾸어 두툼한 봉투에 넣어주시던 일이다. 잔돈으로 주어야 아껴 쓴다는 뜻에서 하신 일로, 그때는 대사까지 된 외교관 아들에게 10만원이라는 액수는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생각과, 또 그것을 천 원짜리로 주시니 안 받을 수도 없고 해서 고소를 금치 못했던 생각이 난다.

아버님의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은 ‘자선’이다. 심하게 말해서 ‘수전노’라고 할 만큼 돈을 아끼시던 우리 부친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정반대의 자선 덕목을 갖추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를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셨으며, 마지막에는 유언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함으로써, 당신의 자선 덕목을 완성하신 분이셨다. 우리 선친은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돈을 쓸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일체의 금전 낭비가 없으셨지만, 고향인 포천 일고등학교의 밴드부 창설을 위해 1억에 가까운 돈을 쾌척하신 것을 비롯해, 각급 학교에 대형 피아노 기증, 노인정에 대한 지원과 사물놀이 악기 기증 등, 고향에 많은 기부활동을 하셨으며, 서울에서도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지역상가 번영회 활동을 통해 많은 기부활동을 하셨다. 이런 기부활동으로 우리 부친께서 받으신 수많은 감사패, 감사장, 기념품 등은 지금도 재단에 보관되어 있다.

또한 부친께서는 평소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결국 장학재단 설립의 유언을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셨는데, 실제로 자식들에게는 양육과 학교 교육비를 부담한 것을 제외하고는, 결혼비용은 물론 아파트 한 채 남기지 않고 타계하신 분이다.

나의 부친 송복은 남은 그렇게 '수전노' 소리를 들을 정도로, 애써서 번 돈을 자신에게는 인색할 정도로 아끼셨지만, 남을 돕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며 관대했으며, 지금도 우리 부친의 자선활동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곤 한다. 작은 일이지만 우리 부친과 거래를 하던 점포 주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부친은 집 근처에 살고 있던,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목수에게 일부러 폐목을 자르는 일감을 주고 수고비로 그 목수를 도와주시는 등,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자선을 베풀었다고 한다. 가게주인들에게도 집세를 내려고 돈을 가져오면 삼계탕을 사거나, 음료수 등으로라도 사의를 표시하고 기일을 어기지 않고 임대료를 잘 내는 점포에 대해서는 사례금을 주는 등 고마움을 표시하셨고, 늘 젊은 사람들에게도 존대를 하는 예의를 잃지 않으셨다고 한다.

내가 직접 겪은 일 중의 하나를 보자면, 우리 부친께서 서울미대를 나온 나의 셋째 딸, 즉 자신의 손녀에게 미술공부에 필요한 카메라를 사주실 때, 내 딸이 카메라 값의 반을 내고, 나머지 반을 우리 부친이 내주신 일이 있다. 이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고 카메라에 대한 애착심과 돈의 귀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앞서도 말했지만 부친께서 생활이 어려웠을 때도 내가 책을 사겠다고만 하면, 언제고 선선히 돈을 주셨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송복은 님의 이런 ‘자선정신’과 함께 또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덕목은 ‘불굴의 독립정신’이다. 우리 부친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신의 돈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는 등, 자식들에게 하루도 의지하지 않은 분이며,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자식들에게 일 전 한 푼 기댄 일도 없고 구차한 얘기를 하신 일도 전혀 없는 분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이 해결하면서 사신 분이라는 점에서도 나는 고개 깊이 숙여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벌어 나 살고, 너희 벌어 너희 살고, 너희는 너희의 생을 개척해 나가라.”는 말씀이 어떤 때는 야속하게 들릴 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이러한 우리 부친의 자립심과 독립정신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이었는지 나는 이제 와서야 그 깊은 속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앞선 생각 때문에 상속도 하지 않으시고 유산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자립·독립정신 때문에 다섯 형제들이 각자 알아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독립해서 살아나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 한때 섭섭했던 생각을 했던 일이 부끄럽기만 하다.

이밖에도 송복은 님은 철저한 '실용주의자'이며, '현실주의자'였다. 우리 부친은 전통이나 인습에 얽매이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 형식과 명분 때문에, 그리고 체면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 구속당하는 것을 매우 혐오했고, 매사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절에 다니시기는 했지만 부처님께 빌어서 기도의 힘으로 잘 된다는 생각보다는, 오직 자신의 노력만을 믿으셨고, 의례적인 것을 배척했다. 그리고 우리 부친은 현세의 삶을 즐기셨고 기회가 닿으면 노래하시고 춤을 추셨으며, 추상적이고 고답적인 생활태도를 비웃었다. 우리 부친은 근면, 성실, 절약 등의 덕목과 함께 호기심이 많았고 세상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했던,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삶을 살다 가신 분이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말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 부친은 이제 가셨으나 자신의 이름 석 자를 '송복은장학회'라는 현판에 남기셨으며, 그의 이름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장학금을 받게 될 많은 장학생들에 의해 기억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 열심히 일했고, 또 열심히 살았다.

이제 이 글을 마치면서 우리 장학회의 장학생들도 자신들의 생애 과감히 도전하여 근면, 성실로 그들의 이름을 더욱 크게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



2003년 6월 27일 장학재단 현판식.
(왼쪽부터) 큰아들 송영식 대사 부부,
강의현 이사장.

* 선형 수상내역

감사장	1967.5.21 서울특별시 경찰국장 채원식
이사 위촉장	1981.7.1 국제라이온스협회 316-A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김태근
표창패	1982.3.27 국제라이온스협회 316-A지구 총재 박승선
표창장	1983.3.27 국제라이온스협회 316-C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심재식
고문이사 위촉장	1983.7.1 국제라이온스협회 316-C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이병률
공로패	1986.1.28 새마을금고 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김재주
감사패	1986.3.13 청성국민학교장

감사패	1986.3.13 포천군 군내면 구읍 1리 주민일동
공로패	1986.3.27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제8지역 부총재 김은천
무궁화사자상 은장	1986.3.28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총재 한준희
자문이사 위촉장	1986.7.1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철재
감사패	1986.9.30 포천군 군내면 구읍 1리 주민일동
모범상	1987.3.27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영재
고문이사 위촉장	1988.7.1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조동환

표창장	1989.1.29 새마을금고 연합회 회장 이두학
무궁화사자상 금장	1989.3.27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총재 이호규
이사 위촉장	1989.7.1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문명원
감사패	1991.6.22 종로3.4가 번영회 회원일동
공로패	1991.6.29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김광수
공로패	1992.6.26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송달석
고문이사 위촉패	1992.6.27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인수

공로패	1993.1.28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김인수
무궁화사자상 금장	1994.3.25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총재 유순일
공로패	1994.6.27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정재찬
자문이사 위촉패	1994.6.27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유태우
장학회 공로패	1995.1.25 종로3.4가동 새마을금고장학회 회장 정홍균
표창장	1996.1.27 새마을금고 연합회 회장 유준향

표창패	1996.6.4 신한국당 종로지구당 위원장 국회의원 이명박
표창장	1996.6.4 저축추진중앙위원회 회장 이동호
초대대의원 당선통지서	1996.7.1 종로3.4가 새마을금고 제5선거구 의장 송복은
감사패	1996.7.4 육군 제7895부대 1대대 대대장 중령 배홍철
표창장	1996.10.20 사단법인한민족통일연구중앙협의회 중앙회장 정성욱
공로패	1997.3.2 종로3.4가 새마을금고 산우회 회장 이치구
공로패	1997.6.26 국제라이온스협회 309-J지구 회장 최영준

공로패	1997.12.29 국제라이온스협회 354-C지구 국일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영재
감사패	1998.1.22 종로3.4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이호일
감사장	1998.5.28 종로3.4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대행 이치구
자랑스런 시민상	1998.6.10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강덕기
감사패	1999.1.10 구읍리 노인정 회원일동
감사패	1999.7.1 경기도 교육감 조성윤
대의원 당선통지서	1999.7.1 종로3.4가 새마을금고 제5선거구 의장 송복은

새마을금고 대상	2000.1.27 종로3.4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대행 이치구
감사패	2001.2. 포천실업고등학교 교장 이주철
감사패	2001.3.4 종로3.4가 새마을금고 산우회 회장 이영일
감사패	2001.12.19 경기도 포천군 청송초등학교장 윤자섭



포천 일고등학교에 악기 일체를 기증하시어 관악부를 창설하게
되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송복은 님의 선행은 지금도 모두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시 발견되고 있다.

추억의 사진 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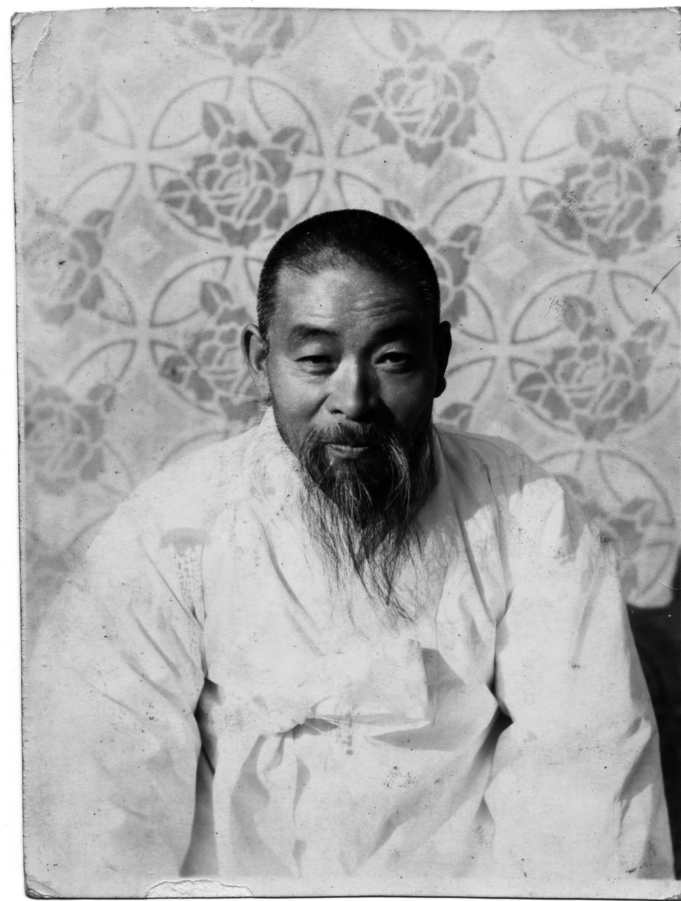
송복은 님 결혼 사진



결혼식 후 기념 사진



일가친척 기념 사진



조부님



조모님



외조모님



설립자의 청년 시절



라이온스클럽 봉사상 수상



포천실업고등학교 피아노 기증



포천실업고등학교 관악기 41대 기증



저축의날 수상



추모비 건립 기념 사진



송복은 장학재단 이사회